

-아/어 놓다

~해 놓다 — 해 두고 준비된 상태로 두기

동작을 끝내고 그 결과를 그대로 남겨 둡니다. 대개 일부터,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입니다. 행위자가 드러난다는 점이 다음 표현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: -아/어 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	-아 놓다	사다 → 사 놓다
그 밖의 모음	-어 놓다	열다 → 열어 놓다
하다 동사	해 놓다	준비해 놓다
구어 축약	-아/어 뒀다	해 뒀어요
타동사만	목적어 필요	창문을 열어 놓았어요
유의어	-아/어 두다	사 뒀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릅니다: 열어 놓다, 사 놓다, 해 놓다. 구어에서는 많이 줄어듭니다: 해 뒀어요, 사 뒀어요.

누군가가 무언가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므로 타동사에 붙습니다.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는 가능하지만 창문이 열어 놓았어요는 불가능합니다.

준비의 뜻이 있습니다. 필요할 때 결과가 있도록 미리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. 표를 미리 사 놓았어요(표를 미리 사 두었다). 놓다가 없으면 단순히 샀다는 사실만 전합니다.

-아/어 있다와의 차이는 누가 드러나느냐입니다. 창문이 열려 있어요는 창문의 상태를 묘사하고,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는 내가 그렇게 해 두었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표를 미리 사 놓았어요.
- 2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.
- 3 회의 자료를 준비해 뒀어요.
- 4 저녁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.
- 5 문을 잠가 놓는 것을 잊지 마세요.
- 6 이름을 적어 놓아서 안 잊어버렸어요.

■ 비교

-아/어 있다

-아/어 있다는 행위자 없이 상태를 전하고, -아/어 놓다는 그렇게 해 둔 행위자를 드러냅니다. 앞의 것은 자동사, 뒤의 것은 타동사에 붙습니다.

창문이 열려 있어요. (창문이 열린 상태다) /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. (내가 열어 두었다)

-아/어 두다

거의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두다는 좀 더 오래 그대로 두는 쪽에, 놓다는 당장의 준비 쪽에 약간 기웁니다. 대부분의 화자는 자유롭게 섞어 씁니다.

사 놓았어요. / 사 뒀어요.

-(으)ㄴ 채로

-(으)ㄴ 채로는 대개 그 상태를 풀었어야 했다는 느낌이고, -아/어 놓다는 일부터 그렇게 두었다는 느낌입니다.

창문을 연 채로 나갔어요. (부주의하게) / 열어 놓고 나갔어요. (일부러)

■ 주의

- ✗ 회의 자료를 준비하어 뒀어요.
- 회의 자료를 준비해 뒀어요.
- 하다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놓다 앞에서 해가 됩니다.
- ✗ 창문이 열어 놓았어요.
-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.
- 이 구문에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. 상태만 말하려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를 쓰십시오.
- ✗ 어제 도서관에 가 놓았어요.
-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.
- 가다는 준비된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. 놓다에는 준비해 두기 위해 무언가에 한 행동이 필요합니다.